

제7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5. 4. 30(목) 14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5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김윤섭, 박상희, 박소희
이철희, 임성훈, 왕광현
- ◆ 안 건 : 미술작품 6건 6작품(조각 6점)
[신규 3건, 재심 1건, 3심 1건, 위치변경 1건]
- ◆ 결 과 : 승인 6작품

□ 위원 발언 내용

<위원장>

- 2015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. 금일 심사위원 6명중 6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
- : 두 번째 방법으로 하시죠(다들 동의).
- : 작품 1부터 보시고 안전을 얘기 하시죠.
이 작품은 어디에 있는건가요?
- : 중앙광장에 있네요.
- : 안전성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.

- : 첫째 작품은 소재가 약간 클래식하면서 세련되고, 특별하게 꼼꼼하게 한 작품 같습니다.
- : 목부분이 힘을 받는데, 두께가 어떻게 되나요?
- : 3티 정도입니다
- : 안정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주거공간에 적합한 소재와 마감으로 되어있습니다.
- :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괜찮을까요? 아이들이 올라가지 않을까요?
- : 좁아서 그러긴 어렵습니다.
- : 그럴 수 있습니다. 우레탄 도장이 금색인가요? 브론즈가 아니고, 우레탄 도장이네요.
- : 지금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.
- : 아이들이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. 5m입니다.
- : 조명을 설치한다는 거죠?
- : 그 안에는 빛이 없고, 전체적으로 쏘는 거 같습니다.
- : 원이 좀 더 컷으면 합니다.
- : 더 크면 무거워 보입니다.
- : 조형성이 클래식하고, 원이 있어 자연스럽습니다.
- : 없앤다면 밑에 화강석을 없애는 게 낫습니다.
- : 밑에는 시민 참여적인 게 대세입니다.
- : 광을 죽여 미끄럽지 않게 하는 게 낫습니다.
- : 잔다듬을 해야 합니다. 눈이 올 경우 큰일납니다.
- : 올라가서 미끄러질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.

- : 고층에서 보면 비둘기가 쪼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세련된 느낌입니다.
- : 형태가 괜찮고, 둥근 스텐구를 없애는 것은 시원한 맛도 있지만, 있으면 하나의 중심으로 해서 안정감이 있고,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, 구심체 역할도 합니다. 밑에 바둑알이 있어야 하는게 오히려 시각적으로 나뉘어지고, 과연 앓을 수 있는지. 높이가 작품밑으로 왕래에 지장이 있습니다. 차라리 바둑알을 없애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. 환경, 공간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... 하는게 낫습니다. 오히려 방해가 될거 같습니다.
- : 구는 다 컷팅을 했습니다. 꽃모양 잎파리 모양입니다.
- : 바둑알을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?
- : 그렇게 가능한가요?
- : 손가락으로 가려보면,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.
- : 이걸 없애면 허전합니다. 권장사항으로 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.
- : 개인적으로는 있는게 낫지만, 다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.
- : 3미터 20입니다. 이게 있음으로써 구를 빼고 그 밑에서 보면 2미터 밖에 안됩니다. 구를 빼면 1미터50정도 됩니다.
- : 잔디광장에 있습니다. 잠깐의 기념촬영 정도에는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. 마구 왕래를 잘하는 거는 아닌거 같아서 있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작가입장에서 자유로운 왕래가 의도였다면 조감도를 좀 더 부각하지 않았을까 싶고, 표석 앞 여인이 관망하는 것을 보면 잔디밭을 밟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거 같습니다.
- : 권장사항으로 넣고, 작가의 의도대로 하는게 어떨까요?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.

- : 바닥을 제거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권장하는 게 좋겠습니다.
- : 없는 게 더 가격 면에서 낫습니다. 시각적으로 없으면 시원해보입니다.
- : 강조되는 게 분산되는 점도 있습니다.
- : 2번 작품 보조.
- : 첫째작품 가격은 얼마죠?
- : 1억7천 2백입니다.
- : 14페이지 주요재료가 화강석입니다. 주재료가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요.
- : 설명판의 주재료를 말하는 겁니다.
- : 의자점, 그것까지 다 작품입니다.
- : 16페이지 창문은 그냥 뷰죠?
- : 감정평가심의도서로 되어있는데. 상관있나요?
- : 도서 제목은 상관없습니다.
- : 창문이 궁금했는데, 정원이 있는거군요.
- : 약간 돋보기 형태, 컨셉은 좋습니다.
- : 큰무리는 없습니다. 오히려 크면 아이들이 손을 넣던가 위험한데, 150 이정도면 무난합니다.
- : 3번 작품입니다.
- : 재심 작품입니다.
- : 지난번 심의할 때 문제는 이 작품안에 공을 세우려면 철근이 두꺼운게 들어가야 안정성이 있는데, 구멍이 두꺼워서 밖에서 보입니다.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이번에는 작게 해

서 안보이게 했네요. 좀더 나아진거 같습니다. 하나는 외부 환경이 반사되게 해서 좋습니다. 가격도 세고, 2억5천입니다.

- : 제작비가 늘어났겠습니다. 2개만 해서는 미밋했을거 같습니다.
- : 구조적이고 안정성이 높습니다. 속에 얇은거를 넣으면 안되는데 구조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. 심봉이 구멍이 크면 보이고, 밖에서 보인다고해서 문제가 됐던 작품입니다.
- : 13페이지요?
- : 13페이지 보면 중간에 봉이 뗏잖아요. 그것을 지탱하는 철근이 필요하잖아요.
- : 가늘게 여러개를 해서 상하좌우로 연결해서 안에서 비춰서 같이 도색하게 한것도 있습니다.
- : 사방에서 용접한거라 괜찮습니다.
- : 봉을 여러번하고, 전후좌우로 용접을 하면 안전합니다. 안보입니다.
- : 자연광에서 보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스쳐지나가는 거라.
- : 안전성만 문제없으면 좋습니다.
- :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찌그러지지 않은 것인지. 두께를 명시해야 할거 같습니다. 차 찌그러지는 것처럼 하게 하지 않도록, 두께만 단서로 넣으면 될거 같습니다.
- : 최하 3티로 해야 할거 같습니다.
- : 4번째 작품, 북한산 푸르시오입니다.
- : 이 작품은 3심입니다.
- : 6500에 이정도 금액이면 젊은 사람이나 할겁니다.
- : 전보다 좋아졌습니다.

- : 조형적으로 볼 때 뛰어나지는 않지만,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무난한 수준으로 가야합니다. 작가에게 이익도 없고, 그래도 이것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
- : 자연친화적으로 한거 같습니다.
- : 동그란 새집이 밤에 빛이 들어오는거죠.
- : 6페이지 보면 계단이 좀 더 사람이 이동할 수 있고, 작품 겸 환경적 요인과 잘 어울립니다.
- : 동감합니다. 컨셉도 맞습니다.
- ; 작가가 바뀌었습니다.
- : 작품이 환경과 적합한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다면 모를까, 의견은 말할 수 있습니다.
- : 메인 자리고,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가능성이 가미 되어야 합니다. 야경 등을 볼 때 이 작품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.
- : 낮에는 허술하게 보일수 있습니다. 밤에는 엘이디 조명이 있으니 괜찮습니다.
- ; 잔디 쪽이 어울립니다.
- : 5개 다하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. 한쪽으로 하는게 어떨지요.
- : 아파트에서 양쪽에 하도록 했습니다.
- : 양쪽에 하는 게 낫습니다.
- : 최소 3티는 가야 합니다.
- : 이런 작품은 조금 지나면 흥물이 됩니다. 지속가능성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.
- : 엘이디가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?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러네요.

- : 인테리어 개념입니다.
- : 그대로 설치하되. 외부 투광 조명으로 하고 엘이디는 하지 않는게 어떤가요.
- : 엘이디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. 밖에서 외부 투광조명을 설치하는게, 엘이디가 손상되더라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.
- : 10% 키우고 우측 2개는 없애고, 바닥 조명을 설치할 것이라고 하면됩니다.
- : 5번 작품 보시죠.
- : 위치 변경만 하는거죠?
- : 건물자체가 위치변경인가요?
- : 19페이지 보면 모서리로 옮기는겁니다.
- : 대로변에서 뒤골목으로 위치변경 하는거네요
- : 옮기는게 오히려 환경이 더 여유롭습니다.
- : 10페이지 보면 변경공간에 휴게 공간도 있고, 작품을 이쪽으로 해서 변경하는겁니다.
- : 주차장 입구, 휴게공간 있어서 훨씬 더 낫습니다.
- : 6번 작품 보죠.
- : 중국에서 잘나가는 조각가입니다. 작품이 좋고, 공모 당선작입니다.
- : 건물은 모던한데, 어울리긴 하네요. 형태는 좋은데, 브론즈가 어울드한 느낌이 듭니다.
- : 이 작가 작품이 다이나믹합니다. 말을 재해석 한 느낌입니다.
- : 클래식하고, 모던하고 언발란스한 조화가 있습니다.
- : 멋집니다. 5미터 가량 됩니다.

○○○ : 가격이 3억 6천이네요.

<채점 진행>

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<위원장>

- 오늘은 6개 작품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5년 제7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